

한반도의 5월은 눈부시다. 이런 눈부신 절기에 불기 2540년의 초파일-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제 막 태어나신 아기 부처님을 2540년의 긴 시공을 뛰어넘어 예찬한다.

홍비나뎡산에는 마야부인이 세워져 있다. 그 당 안에는 마야부인의 옆구리에서 태어나는 아기를 받아내는 돌을새김의 석각(石刻)이 있다. 그곳을 동산이라고 하지만 따지고보면 아쇼크나무(무우수) 몇그루가 서 있는 길가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는 길에서 태어나셨고 80평생을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세상을 떠나신 것이다.

망은 동양사상 특히 불교사상에서 찾아내 고자 하는 일련의 정신활동은 놀라운 것이 되었다.

최근에 한국을 다녀간 독일의 하버마스도 한국은 불교등의 고유한 정신적 유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하며 불교의 순수성 지향이야말로 그 재해석에 따라 현대 한국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불교계에 새삼스러운 힘이 되어 마땅하거나 이밖에도 우리는 구미 각 지역의 두드러진 사상동향에서 불교적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것은

몽축 사설

상대적으로 지적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대 중세의 불교국가 이래 근세 성리학의 완강한 유교, 근대화과정의 기독교라는 통사적(通史的)인 문화단층으로 구분해서 무방한 한반도의 정신사에서 이제 불교는 새로운 당위를 맞이하고 있다.

그것은 한말의 뜨거운 열정으로 통치된

출가자의 수행과 실천문제나 재가자의 기복신앙 위주의 안이한 생활이야말로 광명 지혜의 길인 불교 자체와 어긋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그런가 하면 신중생활의 규범이 풀어진다는 우려도 있는 일탈이나 고질적 책임회피야말로 부처님 당시의 원시교단이 세워온 함축은 미덕과 멀어진 사실은 엄중히 비판받아야 하겠다.

다음 세대의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진지한 종교적 의무를 다하지는 서원의 날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함께 우리 불교계가 불교적인 사 태의 심각한 대응이 필요한 바 있다. 특히 불교에 대한 온갖 음해의 탄압 그리고 파괴행위가 어떤 타종교측의 일부 광신도들이나 지도자에 의해 자행되는 최근의 불상사는 더이상 묵과할 바가 아니다.

우리는 그간 신군부의 군화발에 의한 법난을 겪었거니와 그뒤로도 타종교의 박해와 소외에 대한 이렇다할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하지 못한 상태를 확인한다.

시 마찬가지로이다.

부처님이 그 자비의 손바닥으로 펴보신 불국토나 뛰어난 사상가나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세계정부, 지구사회의 평화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냉혹하게 시험 받고 있는 중이다.

아기부처님으로 다시 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대다수 국민을 위한 유익하고 생동감 있는 사회라면 최우 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다종교시대의 상호 비적대화 및 상호연대의 미덕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든지 포착된다. 심지어 일부 타종교는 불교의 관용을 무기력한 것으로 착각하고 단순적인 책벌의 악행을 거듭하기 일쑤이다.

이러다가는 종교적 갈등이 군사적으로 심화되어가는 다른 지역을 격정하기에 앞서 한국에서의 종교전쟁에 대처해야 할 처지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부처님오신날의 한 영원은 종교와 정치를 떠나 종교와 종교 사이의 자비를 성립시키는 데도 강렬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성찰은 불교계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종교에 주어진 몫이다.

불기 2540년 초여름은 앞으로의 2540년의 정법구원을 위한 신록의 계절이다. 오래된 진리는 늘 새로운 진리로의 탄생에 의해서 공중의 새처럼 물 속의 고기처럼 살아있는 것이다.

한국불교 지금 어디 서있나

이처럼 부처님은 길의 사람이었으므로 그이가 걸친 진리 역시 길의 진리가 아니겠는가. 근면법문에서 열반경에 이르러까지의 길은 1천6백년의 막대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도 그 진리로 하여금 고대 이래의 삼과 문화의 주조(主潮)를 이룰 수 있었다.

오늘날이라해서 다를 바 없이 우리는 근세의 교조적인 배불정책이나 현대의 서양종교문화에 의한 광신적인 적대행위에 대 불구하고 오랜 고등종교로서의 길을 지켜오고 있다. 아니, 제2차대전과 현실사 회주의의 붕괴를 겪은 세계의 새로운 전

한 두 군대가 아니다.

과연 현대 서구 실존주의 이래 불교는 철학적 우월성을 꽃피워 세계를 이끌어갈 새로운 종교사상으로 주목을 받게 충분 했다. 그동안 유일신의 배타적 종교와 과학 그리고 유토피아에 의한 계급투쟁노선 등으로 동양사상의 발상지와 그 분포지역 인 아시아는 거의 수세에 몰릴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전통시대의 국가이념과 대중의 위안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내면화되거나 상투화된 불교의 정체성이

불기 2540년의 불교성찰

개화당이 유교의 공리공론과 당쟁과 부패를 불교적 이념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일이나 60년대 이래의 불교중흥정책 이상으로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불교의 새 기원에 바탕을 둔 한국불교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먼저 불교계 안의 여러 현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교계의 물질주의와 물량화로 인한 방일(放逸)이다.

이와 함께 지나친 출세간주의의 허실로 인한 진정한 대중불교 구현이 매우 어렵 게 된 점도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2의 원호에 의한 화쟁과 상충사상, 제2의 보조에 의한 결사 정신을 제고시킴으로써 한국불교의 격조와 역사적 역량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은 다만 교조 석가모니부 처님의 거룩한 탄신을 봉축하는 것만을 뜻한다면 그 날의 의미는 크게 감소된다. 과연 부처님오신날이야말로 당장 1천6백 년의 불교로 살아온 우리가 다시한번 아기부처님으로 태어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아기부처님으로 자라나

지금 근대 이후의 세계는 동서이념체제의 한쪽이 무너진 이래 달이념적인 불투 명성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것이 표류인 가 모색인가를 인식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는 너무 절박한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구대신 이번에는 세계 도처에서 인종·종교간의 원시적 불화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보스니아와 레바논을 비롯한 중동지역은 인류의 양심을 묻는 비극의 땅이다. 힌두교와 회교의 갈등으로 광범한 인도역

제2의 원호에 의한 화쟁과 상충사상, 제2의 보조에 의한 결사 정신을 제고시킴으로써 한국불교의 격조와 역사적 역량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마음속에 생명 자비 평화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바닷없는 바다에 파도가 일듯, 자취없는 보름달이 호수에 비치듯 사바에 오셨습니다.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달을 찾아내서 현실의 미망을 불수고 초월한 마음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생명이고, 그 마음 속에 자비와 평화가 있으며, 그 마음속의 미래세를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언어(言語)를 가지고도 알 수 없고 사상(思想)으로도 얻을 수 없으며 작묵(寂默)으로 통하는 것도 아닌 바로 그 마음을 통달해야만 모든 인류가 평화를 얻을 수 있고 7천만 겨레의 숙원인 통일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품들을 걸어내고 가라앉혀서 순일한 큰품을 가지고 크게 정진해서 큰 서원을 이루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각 종단 봉축법어

허공이 내외없듯 진여 통달하라

월하 <조계종 종정>

千里의 긴 강이요 萬年の 푸른물 이로다
화창한 봄바람에 호랑나비가 東山에 한가히 놀다
주장자를 바로 하시고
대중은 일러보라 무엇을 聖賢이라 하는고?
잠시 계시다가
보살의 참된 住處는 寂滅이 第一義다
본래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또한 다시 머물름 곳도 없나니라.
그러나 無位眞인이 큰 자비심으로 중생을 연민하사
널리 불찰을 장엄하시고 이 사바에 출현 하셨도다.
대중은 다시 들으라,
無位眞인이 세간에 주하고 일체의 지혜를 닦으며

널리 중생을 제도함을 보신 것은 다 이 방편일 뿐이로다.
이와같은 무량공덕이 법계에 충민할새 모든 성현들이 함께 찬탄하고
뜻 사람들은 흠을 추며 태평가를 부르도다.
계승으로 이르시되
허공이 내외가 없듯이 心法 또한 이와 같도다
민약에 허공과 같은진대 곧 진여의 이치를 통달하라.
주장자를 한번 치시고 단에서 내려오시라.

지견 열어 보이셨네

해안 <보문종 종정>

부처님께서 오셨습
니다.
부처님께서 오셨
만 오신 것이 아니
라, 해마다, 날마다, 매순간 오십니다.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오셨
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 보이고 깨달게 하여 부처의 자리에 들도록 하기 위하여 이땅에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오셨는 지어로는 스승의 모습으로, 해맑은 동자승의 모습으로, 중생의 갖가지 영원을 담은 모습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땅에 오셨습
니다.
이 땅에 살며, 하고 싶은 것 많고, 해야 할 일 많은 저의 중생들은 그 행하신 바가 모든 세간에 이익을 주는 위대한 성자, 무사의한 힘을 지닌 최상의 성자인 부처님께 저희 모두 귀의합니다.

보살정신 되찾아야

록정 <총지종 종정>

지혜와 자비의 화신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중생계에 나타나신 지리니 길을 밝히신지 2540년!
이리서는 중생들의 탐진치는 날로 치성하고 끝없는 미망에서 벗어나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고 따르지 아니한 죄업이라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삶은 오늘도 우리에게 더욱 큰 가르침으로 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살정신이 이 시대에 발휘되어야 할 가장 으뜸되는 불교정신이며 가르침입니다. 우리 다같이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와 자비의 등불로 어두운 무명의 장막을 걸어내고 불국정토를 건설하는데 최선봉에 서야 하겠습니까.

공존공영하는 자비사회 이루자

부처님 생명은 영원히 불변하며, 우주 만유의 본체입니다. 모든 중생들이 갖고 있는 불성(佛性)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부처님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임을 깨달을 때 스스로 보살(菩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탐욕의 마음과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생명을 황폐

하게 하고 번뇌(煩惱)를 일으키는 것은 근본 원인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제3의 물결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또다른 물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때 나와 이웃이 한마음이 되고 공존공영(共存共榮)하는 광명사회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법계에 두루 비추는 부처님 광명

대천 <관음종 종정>

世尊出現 娑婆界
(세존출현 사바계)
爲光徧照 三千土
(위광범조 삼천토)
於無量劫 丙子歲
(어언홀지 병자세)
未悟衆生 尙數在
(미음중생 상수재)
미오중생 상수재)

세존께서 사바세계에 출현하신지 어떤 삼천년이 되사
광명이 널리 법계를 두루하사 비추어 주셨지만
인연없는 중생은 아직도 못 깨우 친채 남아있으니
부처님 탄식 또한 남아 있도다!

고통·번뇌 씻어주리

구암 <법화종 종정>

佛現世間中
爲度衆生苦
扶生盲眼者
擺去煩惱塵

부처님께서 세간에 화현하심은
못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자 함이니
눈눈장님을 바르게 보게 하고
번뇌의 먼지를 말끔히 씻어주시리라

마음의 경계를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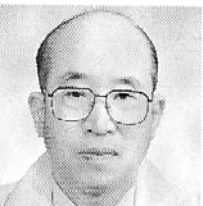
동광 <총화종 종정>

鐵牛不怕獅子吼
恰似木人見花鳥
木人本體無情
쇠소는 사자의 으르렁 거리는 소리를 두려워 하지 않는지라
마음에 잠시의 흔들림도 없으니
미몽도 하지 않는지라
흄사 나무사람(장승)이 꽃과 새를 보는 것 같다.(부동심, 평동심) 나무사람의 본체엔 스스로 정과식이 없으니 오온이 모두 공한 상태니.
회조가 이 사람을 만나도 또한 놀라지 않는다. 마음의 경계가 여여하여 단지 이와 같으니 어찌 보리도를 성취못함을 열려하겠는가.

'참나실현'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

오늘 이곳 방황과 갈등의 현장에 부처님은 인류구원(人類救護)의 대법기를 높이 들고 다시 오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존엄과 인간존중의 존재 실상입니다. 참 나는 독선과 이기와 이면에 찬 나 가 아니라 나와 남, 나와 우주 가 하나인 나이고, 참 삶이란 본연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평등과 자비로써 일구어 나가

는 평화임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인간존엄의 바탕 위에 생명의 실다운 모습이 참다운 나요, 큰 나리면 그러한 나의 실현이야말로 가장 인간답게 사는 참생명의 길일 것입니다. 자비의 등, 지혜의 등을 밝힌 나와 주위에 산재한 어둠을 걸어내고 인류를



밝혀 제체와 이념의 벽을 허물어 불신과 증오, 대립과 투쟁이 없는 평화와 인안의 복전(福田)인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기를 서원합니다.

“출가 4박 5일”

-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

불기 2540년 제26회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수련생 및 지원봉사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차 수	기 간	모집인원	신청마감	연 령	대 상
1차	1996년 7월 7일-7월11일	100명	6월 10일	20세-50세	불일회
2차	7월 14일-7월18일	"	"	"	일반인
3차	7월 21일-7월25일	"	"	"	"
4차	7월 28일-8월 1일	"	"	"	교 사
5차	8월 4일-8월 8일	"	"	"	일반인
☆6차	8월 11일-8월15일	"	"	"	"

●모집요강

①신청서 작성 : 별도의 참가 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자필신청서를 5월 20일부터 6월10일까지 우편이나 전송(FAX)으로 신청

1.이 름	(한글) (한문)	2. 주민등록 번호
3.주 소	(우편번호 필히 기재)	4.직업(구체적 으로)
5.전화번호	(주택) (직장)	6.종 교
7.수련법회 경험유무(있으면 연도, 수련법회참가 사찰명)	8.원하는 차 수	제 차 수련법회 () 제 차 자원봉사 ()
9.참가하고자 하는 소견(상세히 기재)		

②신청대상

- 제1차 불일회 수련법회 신청대상 : 송광사 전국불일회 임원과 각 사암 신도회 임원 및 청년회 임원
- 제4차 교사수련법회 신청대상 : 현직 교수 및 교사
- 제6차 고급반 수련법회 신청대상 : 최근 3년내 삼보사찰(송광사, 해인사, 통도사)에서 2회 이상의 수련경험이 있는 사람
- 자원봉사 신청 지원대상 : 최근 3년내 송광사 수련법회 참가 경험이 있는 분으로 한하며 매차수별 7명까지 선착순 선발

●참가허락 : 신청서류 전형후 6월 20일 이전 개별통보 함
(동참허락 통보를 받은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법회 불참사유가 발생하였을시 는 6월 30일까지 필히 불참연락을 바랍니다.)

●동참금 : 60,000원(교재대금 포함)
수련법회 참가자에 한하여 자원봉사자는 동참금 없습니다.

●문의처 : 전화 (0661)755-0109, 전송 (0661)755-0408

●접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우)540-930
송광사 여름수련회 담당자 앞
(전송 <FAX>으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 바랍니다.)
불기 2540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1 교구본사 송 광 사 주 지 현 고